

글로벌정경대학

행정학과



행정학과는 공공분야의 조직을 관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조직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조직 구성원이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한다.

행정학과는 행정학의 전통적인 토대를 이루는 인사행정, 행정조직, 재무행정 뿐만 아니라 정책학, 전자정부, 도시 및 지방행정, 계량행정, 행정관리, 정부규제, 행정철학, 행정사, 비교행정, 복지행정 등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한 행정의 각 분야를 망라하여 공부한다.

최근에는 행정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정부혁신, 시민사회, 지역개발, 환경행정, 경찰행정 등으로 교과과정이 확대 개편되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전공과목과 함께 사회과학도로서의 소양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타 분야의 유관학문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의 50% 내외를 영어(영어)로 학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학과는 폭넓은 분야를 학습하여 기본소양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전공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하여 전문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정신과 탁월한 문제해결능력 및 공정하고 청렴한 리더십을 겸비한 글로벌 행정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글로벌경영대학

행정학과



교육 목표

행정학의 전통적인 토대를 이루는 인사행정, 행정조직, 재무행정, 정책학, 전자정부, 도시 및 지방행정, 계량행정, 행정관리, 정부규제, 행정철학, 행정사, 비교행정, 복지행정 등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한 행정의 각 분야를 공부한다. 최근에는 행정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정부혁신, 시민사회, 지역개발, 환경행정, 문화행정 등으로 교과과정이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전공과목과 함께 사회과학도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조사방법론,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 타 학문 분야의 학습도 병행한다.



트랙	주임교수	소개
공무원	김동원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으로 구성함
글로벌 리더	서진완	다양한 조직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관련 과목으로 구성함

진로

- 공무원 : 공무원(일반, 교육, 세무, 경찰 등)
- 글로벌 리더 : 공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타 사기업

자격증

- 공무원 : 공인영어시험(토익 등(5급, 7급 공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5급공무원) 등
- 글로벌 리더 : 공인어학시험(토익, DELF, DELE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문분야 자격증(변호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회계사 등) 등



비교과 활동

- 공무원 : 전공동아리 참여 및 7, 9급 공무원 수험 동영상 시청, 정부기관 방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
- 글로벌 리더 : 어학동아리 참여, 전문자격증 취득, 국제기구 방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

트랙
교과목



1학년

	공무원	글로벌 리더
공통	행정학, 현대사회와 행정, 경제학의 이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필수	행정학, 현대사회와 행정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행정학, 현대사회와 행정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선택	공직적성론	

2학년

공통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사방법론, 행정관리론 ODA's Theory and Case Study	
필수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사방법론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사방법론
선택	행정사, 관료제도론, 재정학 행정법, 행정정시론, 헌법	리더십론, 시민사회론, 인간관계론

3학년

공통	공공정책의 이해, 데이터분석론, E-거버넌스, 행정철학, NCS특강	
필수	공공정책의 이해	공공정책의 이해
선택	예산분석론, 행정법 행정학특강1, 정부규제론 도시행정론, 지방행정론 공공문제해결실무, 경찰학	비교행정론

4학년

공통	정책분석평가론, 글로벌거버넌스	
선택	지역개발론, 환경행정론, 헌법 행정학특강2, 한국정부론, 형사법	공기업론, 정부혁신론, 과학기술정책

관련전공

전공명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등
과목명	헌법, 행정법, 세법, 정치학 경제학, 회계학 등	금융론, 조직론, 재무관리론, 인사관리론 국제관계이론, 국제기구론 등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정책대학원 등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전공명	행정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등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등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

국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전국 각급 정부 공직,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국제기구 (GCF, World Bank 등),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

주요 진출 현황 : 워크넷

워크넷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한화 직무소개



주요진출분야



- 기업체 : 신문사, 방송사, 대학교, 병원, 사기업
- 연구소 : 지방행정연구소, 공공행정연구소, 자치행정연구소, 공공자치연구원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일반행정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보호관찰직, 도시계획직 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 소방서, 경찰서 등

진출직업

-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직원, 행정공무원, 인사노무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경찰관, 경찰관리자, 관리비서, 관세행정사무원, 광고 및 홍보사무원, 교육 및 훈련사무원, 법률관련사무원(법무 및 특허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사회계열교수, 생산관리사무원, 일반비서, 자재관리사무원, 정부정책기획전문가, 정부행정관리자, 조세행정사무원, 지방의회의원, 총무 및 인사관리자, 총무 사무원, 통계 및 설문조사원, 행사기획자, 행정부고위공무원, 행정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행정학과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 한화인(<https://www.hanwhain.com/>) → 커리어 → 직무소개 → 경영지원, 금융/자산운용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 시험안내/공지사항
- 잡알리오- 공공기관 안내, 채용정보
-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http://unrecruit.mofa.go.kr>)

한화 직무소개 - 총무/기획/인사



[총무]

- 직무소개

총무 직우는 시설투자·공사지원·유지관리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고 임직원과의 소통과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쾌적한 사무환경 구축, 임직원 복지 증진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체적인 업무지원 제반 활동을 진행합니다. 세부적으로 본사 및 사업장 부동산 자산관리, 임대차 자산 계약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재업무, 설비 총괄 관리 및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업무, 주주총회 기획·운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영·관리 업무,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기획·운영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관련 업무, 경영진 및 VIP 의전 및 대민·대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필요역량 및 우대조건

(Knowledge) 부동산 관련 기초 지식, 민법 상법, 세법 등 법률 관련 지식
(Skill) 커뮤니케이션·대인관계 능력, 조정 및 협상 능력, 주도적이고 진취적 성향, CS마인드

[기획]

- 직무소개

기획 직무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 손익을 관리하는 부문입니다. 기획 직무의 주요 업무 목적은 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경영 전략 수립 및 실행, 효율적 자원 배분, 손익 관리,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전사 업무 분장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실행전략을 수립 및 진도 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내외 주요 경영 현안과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합니다. 기획 직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 전략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략지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부진지표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기업가치 증대 및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보험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책 대응과 경영의 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회의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 필요역량 및 우대조건

(Knowledge) 해당전공지식
(Skill) 전략기획능력, 재무관리능력, 정보수집능력, 분석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MS-Office(Word/Excel/PPT)활용능력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인사]

- 직무소개

인사 직무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근간으로 사업 및 경영 전략의 실행을 지원하는 부문입니다. 인사 직무의 주요 업무 목적은 인적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 부문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사기를 제고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는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을 구축,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사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사 직무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회사 내 각 사업부문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핵심가치가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회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감사(Auditing) 기능을 수시로 수행합니다.

- 필요역량 및 우대조건

(Knowledge) 해당전공지식

(Skill) 정보수집능력, 분석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대인관계능력, MS-Office(Word/Excel/PPT)활용능력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소개



NCS 관련 직무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분야별 검색
- 02. 경영·회계·사무 → 01. 기획사무 → 01. 경영기획 → 01. 경영기획
- 02. 경영·회계·사무 → 02. 총무·인사 → 02. 인사·조직 → 01. 인사
- 02. 경영·회계·사무 → 02. 총무·인사 → 03. 일반사무 → 02. 사무행정

NCS 직무명 : 경영기획

[직무정의]

경영기획 업무는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사업환경 분석
- ② 경영방침 수립
- ③ 경영계획 수립
- ④ 신규사업 기획
- ⑤ 사업별 투자 관리
- ⑥ 예산 관리
- ⑦ 경영실적 분석
- ⑧ 경영 리스크 관리
- ⑨ 이해관계자 관리

NCS 직무명 : 인사

[직무정의]

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인사기획
- ② 직무 관리
- ③ 인력채용
- ④ 인력이동 관리
- ⑤ 인사평가
- ⑥ 핵심인재관리
- ⑦ 교육훈련운영
- ⑧ 임금 관리
- ⑨ 급여지급
- ⑩ 복리후생 관리
- ⑪ 조직문화관리
- ⑫ 인사 아웃소싱
- ⑬ 퇴직업무지원
- ⑭ 전직지원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명 : 사무행정

[직무정의]

사무행정은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문서 작성 ② 문서 관리 ③ 자료 관리 ④ 회의 운영
- ⑤ 사무행정 업무 관리 ⑥ 사무환경 조성 ⑦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 ⑧ 그룹웨어 활용 ⑨ 경영정보시각화



취업성공 수기

행정학과 김○○ - 일반행정 분야

❑ 합격정보

- 기업명 : 국가직 지역인재 7급
- 졸업년월 : 2023년 02월
- 입사년월 : 2023년 상반기

❑ 기본 인적사항

- 영어점수 : TOEIC 780점
- 평균학점 : 4.38
- 자격증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1급
- 취업시 연령 : 26세

❑ 취업 준비 과정

지역인재 7급 : 지역인재를 안 것은 1학기 2학기 짬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과 교수님의 전공 수업 중에 지역인재 전형에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존재를 인지를 하게 되었고 다른 건 안하더라도 학점 관리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행히 1학년 1학기에도 열심히 살아왔기에 지역인재 전형을 몰랐음에도 성적을 좋게 유지하였습니다. 지역인재의 경우 조기졸업을 목표로 3학년 1학기에 학교 병행을 하며 2달정도 필기를 준비하였고 학교 선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엇학기) 자세한 건 아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7 : 학교 선발 시험 전에 체크할 사항>

- 내 졸업이 조기졸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약 합격'하게 된다고 가정 하였을 때 1년안에 졸업이 가능한 상태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고 1년안에 졸업이 가능해야 임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조기졸업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 조건 : 그때까지의 평점 4.0이상 / 조기졸업 순간까지 4.0 이상의 평점과 졸업 학점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최소 3학년 2학기를 넘어 지역인재 선발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1년만에 졸업이 가능하니까요.
- 나의 지역인재 교내면접 지원시점에 졸업학점의 75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였는가? 저는 미리 규정을 알아보았음에도 처음에 학교와 소통문제로 인하여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야 제 수강학점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을학기를 마칠 때까지 75퍼센트를 이수하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여름방학 계절학기까지 다 해서 75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1년 2월에 학교에

취업성공 시기



문의하였을 때 2021년 가을학기 종료까지 75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면 된다고 들어서 여름계절학기까지 포함하여 최대 101학점을 들을 수 있게 맞춰 놓고 2학기때는 편안하게 들으며 피셋 준비를 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여름방학 여름학기까지 75퍼센트(102학점)를 맞추라 하여 몹시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사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엔 받아들여주셔서 가을학기 성적까지 포함될 수 있었으나, 제 가을학기 학점까지 포함되어 반영된다는 확인을 받은 것은 12월 말이 되어서였습니다. 가을학기동안 정말 불안한 마음과 스트레스에 도저히 피셋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학교 수업만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보니 1월부터 피셋 및 헌법을 준비하니 최종합격의 가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불안요소가 많으면 그것이 낮은 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반드시!! 웬만하면 정말정말 여름학기까지 자신의 졸업학점의 75퍼센트 이상을 들어두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 지역인재 7급 시험의 기준은 학과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학년 2학기즈음 되면 졸업대상자(각종 이유로 인한 졸업 유예자)+3학년+4학년을 포함하여 성적 풀(?)이 정해집니다. 저의 경우 200명이 조금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년 정원이 30명~40명 정도인 학과인데도 그정도 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야하니 20등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2등인가 3등인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인플레이션 되어서 상대평가의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인 고학번 학생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평가의 4.5와 상대평가의 4.5는 매우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작년부터 기준 성적이 0.1X 정도로 계속 올라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학과의 경우 제작년의 경우 4.0 근처면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었는데 제 경우(작년) 4.2 근처가 상위 10퍼센트 커트라인 정도로 형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학번이라면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고서라도 지역인재 전형에 생각이 있다면, 감안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평가 때 받은 아쉬운 성적이 있더라도 고려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토익 점수가 있는가? 70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은 국가 시험 전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 시험에다가가서 700점을 넘지 못한 경우 자격 결격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학교 선발에 있어서 갖추어 놓는 것을 학교 선발 방식으로 택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700점이상의 성적을 확보 해놓아야 합니다. (당연히 시험일 이후까지 유효해야겠죠?) 고교익선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인재는 영어 시험이 아니기에 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직무 적합성 : 수강교과목,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일경험) 등
- 조직 적합성 : 인성 및 태도, 기업 인재상 및 핵심가치 적합여부, 미래비전 등
- 직무역량이 중요시되는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역량, 그 역량의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가? 2급 이상이 국가 시험 원서에 함께 토익과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교 선발 이전에 갖추어놓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토익과 같은 이유로 말입니다.

- PSAT 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교내 선발시험에서 서류전형과 함께 유일한 필기 시험인 PSAT 시험을 봅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을 보고 교내에서 선발하는 시험인 만큼 어느정도의 경쟁력은 갖춘 인재이어야 함은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몇점 이상이면 괜찮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상대평가이기에) 이해도와 어느정도의 준비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역인재7 : 선발 시험 총 과정>

1. 각 학과에서 각종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추천서를 써주어 취업경력개발원에 제출. + 학생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취업경력개발원에 제출 (위에 필요한 것들 기재)
2. 서류 통과자에 한해 모의 피셋 시험 및 교내 선발 면접시험 실시
3. 교내 최종 선발
4.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국가 필기 시험(5급 피셋 및 5급 헌법)
5. 국가 서류 심사(대부분 통과)
6. 국가 면접(최종) 시험
7. 최종 지역인재 7 선발
8. 졸업 한다는 가정 하에 다음연도 초에 수습 직원으로 임용

❖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1. **학과 성적** : 아마 시험 응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최소 준우수 장학금이라도 항상 받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어야 성적이 산출되어 그 이전 학기에는 알 수가 없는데, 자신의 장학금 수령 여부로(성적우수) 판단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지원가능여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매년 장학금은 타왔음에도 코로나 성적 인플레이션으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4.2근처로 커트라인이 형성되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두운 방안을 불빛 없이 걷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했듯 장학금 수령여부도 어느정도는 가능성이 되지만 저처럼 상대평가+절대평가 조합이라던가, 중간에 휴학기간이 있게되면 미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적은 통과한다는 생각하에 피셋을 준비해야하는 배짱이 요구된다고 느껴졌습니다.

2.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야하는데, 미리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바쁘신 경우도 있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기업 : 수리논리, 추리 등의 영역을 기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평가(GSAT 기준)
- 공기업 : NCS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 평가 기반으로 시험이 구성되며, 공기업마다 채택하는 영역의 수는 다르지만, 주로 6개 영역(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정보능력)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면 준비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교수님께서도 기억력이 엄청 좋으셔서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기억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알려주면 자신이 적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 수혜 내역을 말씀드렸고 정말 멋진 추천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은 '자신을 잘 아는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려라입니다.

3. 교내 선발 **자소서**의 경우 질문이 3개정도 있었습니다. 지원동기나 장단점 등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고 생각이 들어 제가 작성을 하고나서 취업경력개발원 컨설턴트 선생님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소서의 경우 어느정도 중요한 요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인적성 후기 및 준비 과정

· 교내 필기

- 후기 :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갈수록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 8명인가 9명이 최종 학교 선발이 되었는데,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 필기 응시인원은 총 23명 +-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종일 응시를 하는 만큼 에너지가 몹시 소진되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즈음까지 12호관(컨벤션센터)의 대강의실에 모여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실제 시험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점심 식사는 학교에서 본도시락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시험은 주말에 치러졌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드는 관계로(뇌력이 많이 요구 됨) 달달한 것을 챙겨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히터를 틀면 잠이 오고 히터를 끄면 추워서 연필 잡는 손이 힘들어져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벌 입고 오세요. 시험 분위기는 약간은 엄숙하고 긴장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에서도 3명이나 나와서 도 기분이 묘했긴 합니다.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니 하루빨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약간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게, 범용저널 모의고사를 통해 모의시험을 보는데 워낙 난이도가 들쭉날쭉이라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당일 가서 치러보는 사람이 겪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필기 시험 시간은 헌법 25문제 25분, 나머지 피셋 3과목 90분씩 40문제입니다.

- 준비과정 : 1학년 때 공직적성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서 피셋을 접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최하는 면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준비를 2학기를 종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접해본 경험이 있어 다행히 대충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 국가 본 필기

2월 말 토요일에 치러졌습니다. 우선 시험에 대해 말하자면 역대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전의 기출을 풀어도봐도 차이가 심할 정

취업성공 후기



도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언어논리 영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언어논리 영역에서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사라지니 뒤이는 과목들 역시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른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목별 준비 과정에 대해 작성할 것인데, 저는 준비기간이 2달 가량으로 매우 짧아 시간이 없는 분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제 방법이 맞다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이 시간이 없는 만큼 운이 따라준과 시행착오가 적어야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생략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매일 초창기에는 헌법 100문제 이상을 분석했고 피셋 영역별 2과목씩 했습니다. 그러다 헌법은 반복이 되니 하루에 몇백개씩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피셋은 영역별로 2과목씩 지속해나갔습니다. 최신 기출 순서로 풀었고, 최종적으로는 2010년 2009년도 기출까지 풀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눔)

1) 헌법 : 헌법은 보통 김O항 선생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 몇강 들어보았긴 합니다만 도저히 이거 듣다가는 기출도 못풀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헌법은 60점을 넘겨야합니다만 이론만 들어서는 저는 60점 넘기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천 연습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강의 두 번 돌리면 60점은 나온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출을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돌렸습니다. 김O항 선생의 기출은 해설이 풍부하여 해설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해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외웠습니다. 반복해서 외우고 외웠더니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75 이상은 맞았습니다. (후반기 모의고사) 그리고 버릴 건 버렸습니다. 헌정사 같은 경우엔 물론 선지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냥 완전 생양기라 이거 외울 시간에 판례 몇 개 더 보면 헌정사 선지가 아닌 판례 선지로 옳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헌정사는 과감하게 생략! 했고 판례 위주로 기출을 풀었습니다.

2) 언어논리 : 언어논리는 제가 후기들을 분석해보고, 스스로도 기출을 몇 개 풀며 느껴본 결과 독해 파트는 자체의 능력이 중요하고, 논리파트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독해의 경우 결국 내가 읽어서 이해하고 속도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물론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여러 지문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이해보다는 읽어내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논리파트는 논리퀴즈나 논리논증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독해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은 논리파트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도 독해처럼 속속 읽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저는 2달동안 언어논리에만 쏟을 수 없었기에 강의를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들

취업성공 후기

으면 기계처럼 접근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2~3문제만 맞추어도 성공적입니다. 물론 독해는 웬만하면 거의 맞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러한 전략으로 했습니다. 문제풀이 순서도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저의 경우 전통적 풀이방법인 독해 다하고 논리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독해는 일단 읽히면 감으로라도 맞출 확률이 있습니다만 논리는 중간쯤 풀었다가 안 풀리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는 짝을 각오를 하고 독해부터 건드렸습니다. 보통의 기출은 이게 먹혔으나 막상 2022 시험은 독해파트가 맞추기가 훨씬 어려워 고생을 하였긴 합니다. 고로 문제풀이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해를 다 맞춰야 한다는 기존의 강박관념을 버리고 독해도 어려우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자료해석 : 저는 수학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모의고사보면 1등급이 안나온 적이 거의 없고 수능 때도 100점 맞았을 정도로 되게 잘했는데 자료해석은 좀 달라서 좀 애먹었습니다. 사고하는 방식이 빨라야 하고, 또한 어떠한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빨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나중 자체 기출 시험 때에는 약간 성적이 높아졌습니다. 또 계산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과목 특성상 연계되어 풀이가 진행되는데 숫자 하나가 틀리면 정답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같은 문제지로 계산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렵산으로 넘어가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1~9, 21~29 까지 반드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의 번호는 약간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석치수 강사의 강의를 듣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되여 신O 강사의 기출 분석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개 풀고 한강의 모르는 부분(빨리 안풀리는 부분) 듣고 하였습니다.

4) 상황판단 : 보통 보니 언어논리 점수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주변에 보아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르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때 일수록 기출로 돌아가서 연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셋이라는 것이 특별한 시험인 만큼, 준비하는 방식은 기존에 출제했던 것으로 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O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법조문은 따로 하지 않고, 퀴즈만 주로 기본강의를 듣고, 얼른 듣고나서 기출로 풀었습니다. 기출은 언어논리와 마찬가지로 10개년을 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전략은 1번부터 9번이나 10번까지, 21번부터 29번이나 30번까지는 반드시 맞추고, 그 외의 10번대와 30번대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 선구안을 통해 거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점이 필요없을 뿐더러 저는 75점을 목표로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보편적으로 기업은 2단계 면접으로 진행
 - 1차 면접:
 - 직무면접,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
 - 인성면접, 임원면접
- 기업/직무에 따라 PT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영어면접 등을 진행
- BEI(경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증하고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면접유형이 확대,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통해 쉬운 문제를 확실히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면접 후기 및 준비 과정

· 교내 면접

6명 내외로 나누어서 한 팀이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취업경력개발원 회의실에서 3명의 면접관과 1:3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컨설턴트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취업경력개발원에 계셨던(과거) 컨설턴트분이셨습니다. 아무튼 정장도 입고 시험을 치렀는데, “지원 동기 / 스트레스 해소방안 / ~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딜레마 상황) / 자신의 장단점 / 시험 준비도”와 같은 것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교대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하나를 제대로 못 들은 것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한 분께서 말씀이 되게 길어서 무엇을 묻고 싶으신지 파악이 잘 되질 않았는데 일단 답변을 하고자 최대한 들은 단어로 조합을 하여 대답을 하였더니 다른 대답을 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답변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 들리신다면 다시 질문을 묻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국가 본 면접

면접은 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은 3개가 있습니다. 부산쪽에 작은 학원이 있다고 들긴 했는데, 잘 모르겠으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3개의 학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프OO/인OOO/피OO(해OO)이 있습니다. 프OO의 경우 매우 큰 학원이고 그래서 지역인재 180명 중에 120명 정도가 다닐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원생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OOO은 그 다음으로 그것보다는 작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OO은 그것보다 더 적고, 보통 메인으로 하기보다는 프OO이나 인OOO을 하면서 이강으로 병행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OOO과 피OO을 수강했습니다. 먼저 인OO켓은 연습위주로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OOO에서 제공하는 모의 면접이나 그룹 스터디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단지성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OO은 이론중심이 매우 발달해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복기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을 모두 잡고 싶다면, 돈의 여유가 있고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면 두 가지 모두를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19학점을 들어가며 스터디 3개를 했고, 인OOO과 피OO 모두 수강을 하였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였기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 주제는 노인복지에 관한 pt(개인발표)를 준비해야했는데 20분만에 매우 빠르게 썼습니다. 참고로 통계자료 등을 보고 21줄을 작성하는 개인발표“pt”는 30분+경험을 쓰는 경험형과 딜레마 상황을 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형 작

취업성공 후기

성이 합쳐서 2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발표에서는 자신이 활용할 해결책들을 몇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같은 것은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경험형은 연습하다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돌려막게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대표적 경험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형은 미니 pt 라고 보면 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고, 해결책을 몇 개 기억해두는 것도 좋으며, 해결의 순서를 어느정도 매뉴얼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1. 저는 시작과 끝을 취업경력개발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정보를 안 순간부터 선예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려면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지역인재 선배들이 매우 많이 선예원을 거쳐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해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운을 받고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선예원이 들어갔습니다. 선예원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금전적 지원, 공부 환경 조성 등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시스템과 공부내용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다음으로는 교내 면접을 준비할 때 취업경력개발원의 컨설턴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찮게 한 것 같습니다. STARinU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검을 받았고 3번씩 점검 받았습니다. 내용 분량, 내용 적절성, 문장 구조 등 모든 부분에서 확인 받고 수정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직접 예상 질문도 만들어주시고 연습도 시켜주셨습니다. 총 네 다섯 번을 훈련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도 교내면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레인보우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정말 체계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면접 역량을 갖추어주셨습니다.
3. 아 저는 국가 필기시험 때는 취경원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학교 지역인재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교내 합격자의 필기를 이끌어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멘토링을 통해 합격자가 항상 나왔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교내 필기 시험 전에도 멘토링이 있다고 들었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필기시험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제가 수강했던 필기를 위한 강의비와 면접 학원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비와 강의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 이에 대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필기 합격만 하세요!

5. 면접을 준비하며 면접 멘토링을 수강했습니다. 제작년 합격자 선배님과 작년 합격자 선배님(박OO, 심OO 선배)이 밀착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우수한 질문과 생생한 후기로 학원의 강사보다 더 현장감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6. 면접을 준비하며 취경원의 장재연 선생님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장재연 선생님은 매우 박학다식한 분으로 정평이 나있어 심OO 선배님께 꼭 장재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과연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셨습니다. 말투, 면접관에게 인식될 나의 성격, 내용, 복장, 인사 이 외에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나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꼭 집어주신 질문이 실제로 면접에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이 실제 면접에서 있었던 단 하나의 개인(?)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재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고, 우수한 답변도 제게 제공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발표를 했고 아마 그 덕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학원에 그 답변을 전달하니 매우 우수한 답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학원보다 장재연 선생님 한분이 훨씬 낫습니다. 바쁘시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신, 숨은 조력자 박승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국가 필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 멘탈이 흔들흔들 지진 난 줄 알았는데 박승혁 선생님이 정말 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불을 거니 기다려 보라고 하시면서, 약간 운명공동체?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관문이 매우 많아 이를 관리하는 선생님께서도 기한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선예원까지 관리하셔서 상당히 피로하셨을 텐데 박승혁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고 정이 많은 분입니다. 장재연 선생님께서 제게 합격을 위한 핵심 능력을 주셨다면 박승혁 선생님께선 강한 안정(멘탈)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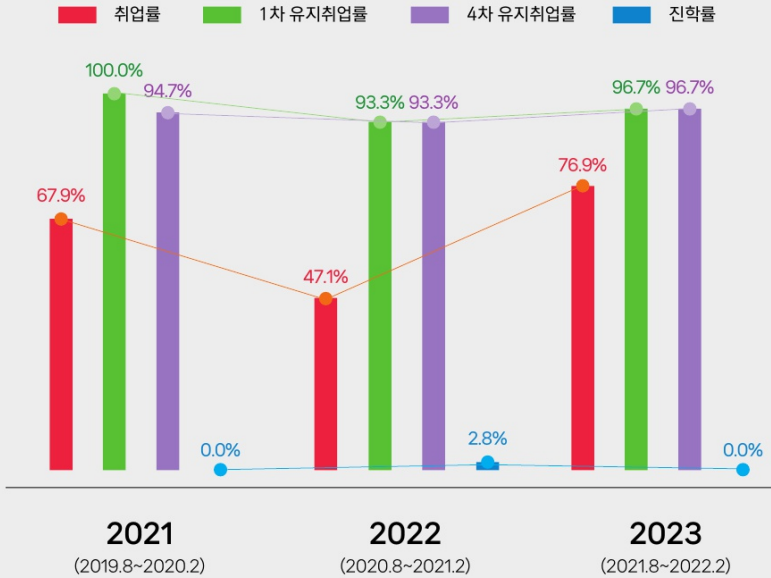
취업성공 후기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역인재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오진 마시고 항상 보험을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관문이 많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그냥 1년을 넘겨버려야 하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내 선발이 되더라도 국가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한번만 더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졸업 후 1년까지만 추천이 되는 규정도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도 중요하여 커트라인을 확실하게 넘을 확신이 없다면 최선을 다하되 다른 길도 약간은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봅니다! 성적이 확실하게 10퍼센트에 들어간다는 것을 교내 필기 직전ैया 알 수 있는데, 그 전부터 필기를 공부해야 하죠? 불안감을 안고 나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도 지역인재 생각은 있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소방특채,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자격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아무 보험없이 떨어졌다면 아찔했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양한 루트를 열어 둡시다.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준비한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뭐가 되었든 공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이 짧은 길든 그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적게 남으면 그냥 달려야 합니다. 주말에 쉬고 평일에 열심히 하자와 같은 그런 생각은 단기간 준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밀어넣어야합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 7시에 집에 나가서 밤 1시쯤에 돌아왔어요. 되게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면 힘내기 위해서 계속 고기만 사먹었고(바깥음식) 책상에서 항상 잤어요. 그래서 뼈가 다 뒤틀려서 도수치료 받으며 시험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하나만을 위해 인생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뒤가 없는 시험이라 올인 하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붙고 나면 저처럼 헬스pt 받으면서 교정하면 알아서 잘 고쳐주니까요. 멘탈도 관리 잘 하길 바랄게요. 자꾸만 흔들리고 달력은 넘어가는데 그럴 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긍정적 사고를 갖길 바라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몇 초나마 힘 낼 포인트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똑똑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취업 및 진학현황



연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1차	4차	
2021	28명	28명	19명	0명	67.9%	100.0%	94.7%	0.0%
2022	36명	34명	16명	1명	47.1%	93.3%	93.3%	2.8%
2023	41명	39명	30명	0명	76.9%	96.7%	96.7%	0.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2. 31 공시취업률 기준 (대학 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참조)
- 기준 : 3개년 12월 31일자 공시 취업률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 취업률 산출방식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 진학률 산출방식 (진학자 / 졸업자) × 100

